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인정하기

예수님 시대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권위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는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은 지키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은 할 줄 알았지만, 자신들의 말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은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이고,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는 것.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행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란 다시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는 실행해야 할 것 보다 겉치레에 마음을 두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한 형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일을 할 때 강한 압박을 자기도 모르게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떤 일을 할 때 ‘잘 해야 한다’, 또는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답니다. 일을 잘하고 좀 더 완벽하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갔는지 분명히 기억은 못하지만, 중요한 대화는 이랬습니다.

‘일을 할 때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냐?’

‘... 불안하다’

‘무엇 때문에 불안한 것 같나?’

‘...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양파 껍질을 까듯 형제님의 마음을 보니, 스트레스 안에는 완벽함을 바라는 마음이, 완벽함의 껍질 안에는 불안함이, 불안함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었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 사람마다 껍질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양파 속처럼 가장 중심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자연발생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인정받음’에 대한 마음도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면서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성실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들을(화, 질투, 불안, 완벽 등)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고 하십니다. 누구든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런 깨달음 없이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낮아질 것이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자신의 성장은 물론, 주변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디딤돌로 삼으면 어떤 사람이 아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함의 기쁨을 느끼며 바른 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성 본당 황영화 마티아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형식주의에 물들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르십니다.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높이려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며 이 전례를 봉헌합니다.

입당성가 : 24번 '내 맘의 천주여'

본기도

†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말라키 예언서 1장 14절-2장 2절.8-10절

안 내 : 말라키 예언자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종교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묵 상 :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는 세상, 스승이 너무 많아서 누가 스승인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자가 될 때 이 세상은 밝아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화답송 :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2장 7절-9절.13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묵 상 : 교회 안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허례허식과 권위주위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처신하며 교우들을 섬기는 봉사정신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3장 1절-12절

강 론 : '인정하기'(1-2쪽)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164번 '떡과 술이 형상에'

영성체 후 묵상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불평,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 줄 것이 없다는 불만,
아무리 일해도 빛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
보여주고 싶어 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비단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사람들에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불만도 여기서 연유되는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깊은 삶, 영적인 삶은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하느님만 아시면 족하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감추인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00번 '주님과 나는'

※ 공소사목 성금

박기섭님	10,000원	익명	100,000원
이재복님	50,000원	조성모님	50,000원
장수산님	100,000원	김기석님	30,000원
배영숙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6,3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교리교사의 날

- 일시 : 11월 5일(주일) 10:00 -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초·중·고등부 교리교사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간편한 복장, 운동화
- 신청 : 10월 30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참가비 : 1인 10,000원

■ 사제회의

- 일시 : 11월 6일(월) 14:30 ~ 11월 7일(화)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백색영대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역사서)

- 일시 및 장소 :
안동 - 11월 11일 18일 25일 12월 2일 9일 16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함창 - 11월 13일 20일 27일 12월 4일 11일 18일
함창 성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30,000원(교재비 포함)

■ 예비신학생 부모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2일(주일)
- 장소 : 전주교구 나바위 성지, 천호성지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편한 신발, 모자
- 회비 : 1만원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7

- 일시 : 11월 13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문경 엠마오 기쁨 피정의 집 축복미사

- 일시 : 11월 17일(금) 11:00
- 장소 : 문경읍 지곡리 태극기마을 끝동네
(문경성당에서 5분거리)

■ 제4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11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1월 16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고3 피정

- 주제 : '길'
- 일시 : 11월 18일(토) 10:00 ~ 19일(주일) 18:00
- 집결 장소 : 휴천동성당 10:00
- 대상 : 고3(선착순 25명)
- 회비 : 1인 40,000원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개인배낭, 따뜻한 겨울옷, 운동화, 목주, 필기도구
- 신청 : 11월 10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9일(주일)
- 장소 : 부산교구 언양성당, 살티공소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편한 신발, 모자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2차 모집 : 11월 7일(화) ~ 11월 21일(화)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안동교구 성령대회

- 일시 : 11월 11일 10:00 - 17:00
- 장소 : 함창 본당
- 회비 : 5천원(중식비 포함)
- 강사 : 두현자 올리아나
- 미사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갈전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매주 주문판매

- 교우들이 직접 농사지은 콩을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메주를 만듭니다.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 문의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성골롬반회 창설 100주년 기념개막미사

- 일시 : 12월 2일(토) 14:00
- 장소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 주례 :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 문의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6-1217

■ 24차 해외선교사교육 (2018)

- 일시 : 2018년 1월 15일(월) ~ 2월 10일(토)
- 대상 : 해외선교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 문의 : 02-953-0613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10-5397-8420 협의회장 강승원 요셉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센터)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오늘날 가정에 관한 복음 선포

혼인 거행의 준비

214. 때로는 약혼한 이들이 합의의 말에 담긴 신학적 영적 비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합의의 말은 이어지는 모든 행위의 의미를 밝혀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래를 포함한 전체성, 곧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합의의 말의 의미는 다음을 보여 줍니다. “자유와 신의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서 서로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화된 의사소통의 문화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늘어 나서 그 결과로 발생한 손실을 생각해 봅시다. ……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은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강요될 수 없고 희생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215. 케냐의 주교들은 “예비 신랑과 신부는 혼인 예식 당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평생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혼인성사가 과거와 추억의 일부가 되는 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혼인성사는 혼인 생활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혼인한 부부의 인생에서 출산과 관련된 성의 의미, 몸의 언어, 사랑의 활기찬 행위는 모두 “전례 언어의 중단 없는 지속”이며 되는 것이며 “혼인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전례가 됩니다.”

216. 약혼한 이들은 또한 성경 말씀과 그들이 교환하게 될 반지의 의미와 예식의 또 다른 표징들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너그럽게 되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함께 청하지 않으며, 동정 마리아 앞에서 그들의 사랑을 봉헌하지 않은 채로 혼인 예식 장소에 도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인 준비를 도와주는 이들은 그들이 매우 유익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혼인 전례는 특별한 행사로 가정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징을 일으키셨습니다. 새 가정의 시작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인 좋은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남녀와 맺으신 계약의 새 포도주입니다. …… 흔히 주례 사제는 교회 생활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나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또는 다른 종교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포함한 회중을 대상으로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신혼 생활 초기에 함께하기

217. 혼인을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 곧 서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랑하자는 이들만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의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단지 끌림이나 모호한 애정이라면, 이러한 애정이 약해거나 육체적 끌림이 줄어들 때에 부부는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착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신혼 생활 초기의 부부가 그들이 서로에게 속하고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을 부요하고 깊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약혼 기간이 넉넉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급하게 혼인을 결정하며, 심지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신혼부부들은 약혼 기간에 실천하였어야만 했던 그 과정들을 나중에 완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18. 다른 한편, 혼인 사목의 도전 과제가 약혼한 이들이 혼인을 완성품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참되고 반복될 수 없으며 혼인성사로 확인되고 축성됩니다. 그러나 그 결합을 통해 부부는 주인공, 곧 그들 자신의 역사의 주인이며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계획을 창조하는 이들이 됩니다. 그들의 눈길은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날마다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미래를 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부부는 서로가 완벽한 배우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부 각자는 모든 환상을 버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두가 미완성이라서 성장해야 하며 발전 과정에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혼인을 인내와 이해와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점차로 따지며 원망하는 시선, 서로의 이익과 권리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기주장과 경쟁과 자기변명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는 함께 성숙하며 하나 되어 발전하도록 서로를 돕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혼부부에게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분명히 보여 주어 그들이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서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목표가 부부가 모든 상황과 그 여정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하여 줍니다. 그들이 받은 혼인의 축복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은총과 힘이 됩니다. 이 축복은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어 그들의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수단과 세부 사항을 마련하도록 해 줍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어르신들, 아름다운 도서관

박월수 아네스
(안동가톨릭문인회)

일주일에 두 번 한글 문해 교실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여학생 수가 훨씬 많은 문해 교실엔 칠학년 후반부터 팔학년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더러는 칠학년 같은 구학년 여학생도 있지요. 미래를 꿈꾸기보다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더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삶의 이치란 걸 일정 부분 알아버려 어딘가에 닿기 위해 바쁘게 서두를 것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 할 것도 없는 나이입니다. 느긋하고 너그럽습니다. 자신의 걸 똑 떼어 내어주는 데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이지만 이루고자 하는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를 깨치는 것입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산 세월이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늦었다고 하면서도 읽고 쓰고 싶어 하시는 열정이 눈물겹습니다. 말로는 못한 얘기들을 손끝으로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맘이 간절합니다. 자식에게 손수 편지글을 써서 전해주고 싶다는 어르신의 작은 소망이 화석처럼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 어제 배운 것들을 자꾸만 베껴 썼다고 하셨습니다. 숙제로 내어드린 일기를 붙들고 썼다 지운 흔적이 새까맣게 묻어납니다. 오일장 가서 산 물건의 종류까지 빠트리지 않고 조목조목 적어 넣는데 받침 글자가 저 혼자 달아나 버렸다며 너스레도 떠십니다. 복잡한 모음자는 더욱 헛갈린다며 뽀뽀뽀 쓰인 숙제장을 들고 아이처럼 검사를 받으십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숙연해집니다.

마음에 쏙 드는 시가 있어 낭송해 드리면 더러는 눈시울이 촉촉해지기도 하십니다. 어르신들처럼 따뜻한 분들만 계시다면 세상은 참 향기롭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이야길 들려드릴 땐 박수를 치며 아이처럼 웃으시지요. 흥에 겨우면 수업 중인 것도 잊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어르신은 노래도 한 곡조 뽑으십니다. 진즉에 글을 깨쳤다면 그분들 삶의 빛깔이 훨씬 더 다채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두 시간의 수업이 지루할까 문화원에서 마련해준 간식을 챙겨가지만 어르신들은 따로 먹을 걸 준비해 놓으십니다. 삶은 옥수수며 고구마 같은 철철이 밭에서 나는 것들인데 부족하다 싶으면 누룽지도 미리 만들어 두시지요. 때로는 외지에 나간 자식들이 사다 드린 먹거리까지 통째로 들고 오십니다. 간식으로도 모자라 공부방 청소까지 말끔하게 마치고 어린 선생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햇살 같습니다.

노는 손이 아까운 어르신들은 수업이 끝나면 밭으로 가십니다. 기억자로 굵은 허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자식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어 주시지요. 그도 힘에 겨운 어르신들은 그나마 수월한 고추 꼭지를 따며 소일합니다. 그렇게 모은 짬뽕돈으로 손주들 용돈 챙겨주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면서요. 일철이 끝나면 겨우내 병원 순례를 하게 될 걸 알면서도 내리사랑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느 날 돌려놓은 빨래를 세탁기에 그냥 두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한 번 더 행구면 말짱해지는 빨래처럼 어르신들 얼굴에 난 주름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그분들 말씀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사람이 때 되면 늙고 더 나이 들면 먼 길 가야하는 게 순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야 젊은 세대의 어깨가 가벼워진다 하시면서요. 어르신들이 '에이지 퀘이크'란 전문 용어를 들어보셨을까요. 그분들은 인구가 줄어들어 가져올 커다란 충격을 이미 삶에서 얻은 경험으로 터득하고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많은 지식을 지닌 꼭 찬 도서관임을 봅니다.